

중국, 독일과 제조업 혁신 강화 방안 논의

김영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

주요내용

- (현황) 리커창 총리는 2017년 5월 31일~6월 1일 독일 순방 기간 동안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연례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방위적 협력 확대와 제조업 혁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.
- (원인과 분석) 중국정부는 노동집약형 전통 산업의 한계와 혁신 능력의 부족을 자각하고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, 독일과 같은 제조 선진국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.
- (전망과 시사점) 양국 정상간 합의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기업 차원의 구체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중국과 독일의 제조업 혁신 협력은 더욱 심화될 것임.

1. 이슈 현황

- 리커창 총리는 2017년 5월 31일~6월 1일 독일 순방 기간 동안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연례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방위적 협력 확대와 제조업 혁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.

- 리 총리의 이번 독일 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이며, 2004년부터 시작된 양국 총리간 연례회담의 일환임.
 - 이번 회담에서 리커창 총리는 양국간 무역·투자 자유화를 강조했고 이에 메르켈 총리는 투자금융·신에너지 자동차·의료·인문 교류 등 분야의 양국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함.
- 특히 양국 총리는 '중국제조 2025'와 독일의 '인더스트리 4.0'연계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 문건에 서명하고 양국 기업 간 합작 프로젝트도 체결됨.
 - 항공우주·비행 분야 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, '중국제조 2025'혁신센터 설립 협력, 바이두(百度)와 보쉬(Bosch)그룹의 자율주행 기술 전략 공유, 베이치(北汽)그룹과 다임러사의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 전략 협력 강화, 중독 인공지능 연구원 프로젝트 등을 추진
 - 리 총리는 6월 1일 '공동혁신(共塑创新)'을 주제로 개최된 중·독포럼에서 양국이 상호 최고의 혁신 파트너라고 강조(혁신 60차례 언급)하면서, 독일 측과 전기차, 반도체 등 선진 기술 분야의 협력 플랫폼 구축

을 제안

2. 원인과 분석

■ 중국정부는 노동집약형 전통 산업의 한계와 혁신 능력의 부족을 자각하고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, 독일과 같은 제조 선진국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.

□ 중국정부는 2015년 5월 제조업 혁신 전략인 ‘중국제조 2025’를 발표하고 △ 혁신역량 제고 △ 전략 산업¹⁾ 육성 △인터넷 기술과 전통산업 간 융합 등을 통해 기술주도형 스마트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 중임.

□ 특히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술 축적을 위해 제조 강대국인 독일을 중국의 혁신 모델로 삼아 데이터 보안, 지식재산권 보호,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.

□ 독일정부도 ‘인더스트리 4.0’과 ‘중국제조 2025’의 연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양국 정상회담 때마다 핵심의제에 포함되고 있으며, 유관부처 및 기업 간 협력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.

- 2015년 12월 양국 정부 합의에 따라 선양(沈阳)에 건설된 ‘중국독일 첨단 장비제조 산업기지’ 내에는 스마트 제조업·로봇·첨단장비 제조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독일 기업 및 R&D 센터 등이 입주

표 1. 중국-독일의 제조업 혁신 협력 현황	
시기	주요 내용
2014. 10.	- 리커창 총리, 독일 방문 시 양국의 제조 혁신에 초점을 맞춘 협력 프레임으로 ‘중독 협력행동강요:공동 혁신(中德合作行动纲要:共塑创新)’ 발표
2015. 3.	- 리커창 · 메르켈 총리, 하노버 세빗(Cebit) ²⁾ 개막식에서 양국 간 IT 분야 협력 의지 표명, 중국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의 청사진 제시
2015. 7.	- 중국 공업정보화부 ·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, 《중독 기업간 스마트제조 및 생산공정 네트워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》 체결
2015. 10.	- 메르켈 총리 방중 시, ‘중국제조 2025’와 독일 ‘인더스트리 4.0’ 전략 연계 추진에 합의
2015. 12.	- 중국 국무원, 선양(沈阳)에 ‘중국·독일 첨단 장비제조 산업기지’를 조성하는 방안 발표
2016. 1.	- 중국 과학기술부 · 독일 연방교육연구부, 스마트제조(인더스트리 4.0) 및 스마트 서비스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 촉진에 관한 공동 성명 발표
2016. 3.	- 리커창 총리, 독일 대통령 방중 시 ‘중국제조 2025’와 독일 ‘인더스트리 4.0’의 전략적 제휴 방안 제시
2016. 6.	- 메르켈 총리, 방중 시 ‘제4차 중독 정부간 협상 공동 성명’에 ‘중국제조 2025’와 독일 ‘인더스트리 4.0’ 연계 방안 포함
2016. 9.	- 표준화 시스템 구축, 협력 시범단지, 인재양성 등 4대 분야에서 14개의 스마트제조 시범 합작 프로젝트 추진
2016. 11.	-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지능형 제조 및 상호연계 생산공정에 관한 중국 · 독일 심포지엄 개최
2017. 6.	- 리커창 총리 독일 방문, 메르켈 총리와 연례회담 - 중국제조 2025 혁신센터 설립, 중독 인공지능 연구원 프로젝트 등 10여 건의 협력 문건 체결


자료: 中国政府网(2016. 6. 14), 「中国制造2025如何对接德国工业4.0」의 언론자료 종합하여 저자 정리

1) 10대 핵심 산업 분야: 차세대 IT 산업, 고급 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 및 로봇, 항공우주 설비, 해양 엔지니어 설비 및 첨단 선박, 선진 철도교통 설비,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, 전력 설비, 농업기계 설비, 신소재,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

3. 전망과 시사점

■ 양국 정상간 합의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기업 차원의 구체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중국과 독일의 제조업 혁신 협력은 더욱 심화될 것임.

□ 향후 중국은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기 위해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 획득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산업단지에 첨단 기술 및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됨.

□ 또한 중국과 독일의 혁신 제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. 

참고문헌

- 国务院, 外交部, 中国政府网, 新华社, POSRI 외 중국 언론자료 종합

알립니다

-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2) 하노버 세빗(Cebit) : 독일 하노버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 정보통신 박람회